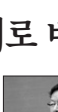
# 상대방을 눈부처 자세로 바라보자

(논)자재 비작 나타난 사람의 형상

## 이도흠 교수, 민추본 세미나서 역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사이에 또다시 긴장감계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자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화합불교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불교도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창립 13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대립이 자기 체제만이 옳다는 아만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상대방을 눈부처의 자세로 바라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남한은 역설 포기해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한 입장에서는 정단무기제를 갖춘 대국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없는 제재만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핵을 보면서는 것받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라 할지라도 나의 실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의지대"라며 "불교는 남과 북, 미과 중국, 일본, 시민사회 등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는 제라다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대립, 자기체제만 옳다는 '아만'서 비롯
남북 미중일…시민 연기적으로 바라보는
구체적 불교운동 제라다원 필요하다
"

김진환 민추본 정책기획위원도 지기 자리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불교평화 운동의 필요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정성 명사를 넘어 평화통일교육을 일상화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은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연례 연수교육 교양과정에 '불교와 평화통일' 같은 과목을 개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앞선 기념법회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위주 선목스님)는 민추본과 공동으로 대규모 신세사 성지순례 법회를 추진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8·15를 전후로 5000명이 참여해 평화의 불을 북녘 땅이 밝히는 일대의 전쟁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추본 본부장 지홍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하루속히 대화가 재개돼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홍스님은 "민추본은 불자들과 함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평양 불교문화회관건립, 북녘사찰문화재 공동전수조사사업 등 올해 계획한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종양위원회도 축전을 통해 통일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힘차게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0@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2일 총무원을 방문 이화여대 스모모에서 '길 위에서' 관람에 앞서 이정재 감독을 만나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nt3rd@bulgyo.com

## "개성공단 정상화 앞장서주세요"

### 개성공단기업협회, 총무원장 스님 예방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한재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 정상화에 종단이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개성공단이 오늘로 67일째 조업을 하지 못해 걱정이 크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남북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북문제에 관련한 종단의 원칙은 남북공존과 상생"이라며 "개성공단은 정치적 사항과 관계없이 유지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야는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 자유화와 이산가족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미래와 종사자의 삶이 달린 문제인 만큼 종단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미상대책위원장과 문창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옥성석 나인모드 대표이사, 이재웅 제이씨 콤 대표이사, 이영동 (주)개성 대표이사, 오보표 로반초 개성 법인장이 배석했다.

이현경 기자

## 불교포럼 임명록 씨 KB금융지주 회장 내정

조계종 불교지도자네트워크인 불교포럼 회원인 임종록 KB금융 사장(사진)이 최근 KB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됐다. 임종록 회장 내정자는 독실한 불자로 평소 임재스님의 '수계자주 입체개주(隨處作主 立處皆眞)'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고 한다. 한 인물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이제껏 있는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참된 곳이라는 생각으로 공직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임 내정자는 1955년 강원도 양구출생에 대마나 경기고 서울대 고시출신 재무관료로 이력을 쌓아 2008년 KB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임원인물과 관심이 주준비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무위원들도 단체관례에 나섰다. 스님과 종무위원들은 지난 12일 이뤄어대 내 마프라수 모모에서 '길 위에서' 를 함께 봤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영화시작 전 이정재 감독을 만나 박수를 친 한편, 국내 최초로 바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린 감독의 노고를 격려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감독인 이정재 씨는 "이번 조수는 "엠마 천 영화를 10번 넘게 본 분이 출가하기 위해 백음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불교포럼이 받은 선물에 대해 작가나의 영향력 것 같아 기쁘다"고 인사했다. 배급대행사를 담당한 희나용 어트라수도 모모 부사장도 "영화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스님들의 뜻과 생각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며 "기회 단계부터 개정하는 것보 이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ant3rd@bulgyo.com

## 서울불교전문강당 1기생 스님들 아름다운동행에 1500만원 전달

### "아프리카·중가복지·청소년포교 위해 사용"

서울불교전문강당 1기생(회장 윤하스님) 스님들이 아름다운동행에 추진 중인 지하나눔 사업에 정성을 보탰다. 서울불교전문강당 1기생이 마련지 명진스님, 현종스님, 성묵스님, 재욱스님 등은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아름다운동행 사상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지하나눔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불교전문강당은 지난 2003년 문을 연 한문불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스님들은 "불교 발전을 기금은 함께 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아프리카 학교건립 사업과 승려노후복지기금,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태규 기자 chw19@bulgyo.com

## 법규위원장 몽산스님 선출

###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청회—심판 종료

조계종 법규위원장으로 몽산스님(당 촉성왕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보조회의실에서 제79차 회의를 열고 혜운스님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법규위원장에 몽산스님을 요청했다. 몽산스님은 "종헌 및 율장의 정신과 승가의 상징에 따라 관련절대에 게 사건을 심판해야 하는 법규위원에 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위원장 선출에 건 스서의현 전 총무원장 댈번 장계 재심요청 심판종국에 건 스법규위원회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 검토의 건이 논의됐다. 면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